

【育兒】

5월의 월례회발표

어린이와 놀이



이 태 현

아동학 부장

어린이의 심신 발육(心身 發育) 과 사회적 발전(社會的 發展) 은 놀이터에서 형성(形成)된다

어린이의 생활은 전부가 장난이라고 해도 지나친 표현은 아닐 것입니다.

유희(遊戱)는 어린이의 근육을 발달시키고 놀이에서 여러 가지 지혜를 얻게 되고 창작하는 마음을 키우게 되고 어린이의 감정(感情)의 조절(調節)에도 유익하고 어린이가 하나의 인간으로써 인간 생활에 익숙하게 되며 여러 경험(經驗)을 쌓아 올리는 수단 방법이기도 합니다.

어린이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情緒的)으로 사회적으로 발전하는 기초는 아마도 어린이의 유희생활에서 싹트는 것입니다.

주부의 많은 책임 분야(責任分野)중의 한 가지가 어린이에게 어떠한 놀이의 환경을 주며 그 놀이를 어떻게 보살피 주느냐일 것입니다. 담에 열린 수수기오이의 모양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태양이 잘 쬐이고 자라기에 알맞는 넓은 자리를 차지한 수수기오이는 늠늠하게 잘 자라지만 어느 조건이 불리한 장소에 열린 것은 크게 자라지 못 할뿐 더러 그 모양조차도 제대로 지니지 못하고 주구려지고 자라지 못합니다.

아래에 어린이 놀이에 임하는 어머니의 태도와 이어서 놀이의 중심이 될 장난감에 대해서 말씀

하고자 합니다.

(1) 놀 수 있는 장소를 주자

놀고자 하는 본능을 충분히 만족시켜 주기 위해서 어른들에게서부터 방해당하지 않는 자기의 놀이터가 꼭 필요하며 이것은 어린이에게 마음의 안정을 줄 수 있습니다.

흔히 어머니들은 어린이가 부모의 소중한 물건에 손을 댔다고 또 부서버렸다고 한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어린이의 활동하고자 하는 그의 욕망이 만족되지 못한 경우일 것입니다. 호기심이 많은 어린이의 욕구를 고려해서 가구의 구입 배치를 해야 할 것은 물론이고 노는 방을 준다든가 또 틀 한 구석은 마음대로 노는 장소로 되었다든가 큰 안방의 한 구석

을 휘장이나 판자로 간(間)을 막어 주어도 좋겠습니다. 한국의 대부분의 어린이의 놀이터는 잘 소제도 안된 골목인 경우가 많습니다. 공원도 없고 어린이 놀이터도 없고 집에서는 몰아내고 결국 그들은 위험하고 불결하며 어머니의 손과 눈이 닿지 않는 골목에서 놀게 됩니다. 뜰 한 구석에서 못질을 하면서 노는 어린이를 망치 소리가 듣기 싫다고 또 못과 판자가 아깝다고 해서 또 뜰이 어지러워진다고 해서 골목으로 쫓아야 되겠습니까? 안방에서 바느질하고 있는 어머니에게로 기차 놀이를 하며 기차를 몰고 오는 아이가 있다면 그 엄마는 아이의 기차 놀이를 위해서 비켜 주어도 좋을 듯 합니다.

집은 어른과 어린이가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생활의 터전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어린이가 원통 온 집안을 어지럽게 해도 안 되겠고 또 어린이는 놀이터로 작정된 곳에서만 놀아야 하는 법도 없습니다. 우리들 어머니가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안방이든 부엌이든 침실이든 같이 놀이의 생활을 계속시켜야 합니다.

여기에 이상적인 면모는 각방에 어린이를 위한 선반이나 장이 마련되어서 거기에 장난감이 정돈 되어도 좋다는 것입니다.

(2) 흥미(興味)를 알고 그것을 확장시키자

흥미를 안다는 것은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어린이의 지식의 세계를 넓히는 것은 어린이 지도의 근본이 되겠습니다.

흥미의 방향을 알므로써 그의 성격 재능을 알 수 있습니다. 어린이의 흥미는 장래의 생업 선택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하는 것은 흥미의 편식(偏食)이 있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흥미가 한 쪽으로만 쏠리면 신체의 운동 부족도 있을 수 있고 풍부한 경험을 가지지 못해서 풍부한 경험의 소지자가 가지는 원만한 발달을 할 수 없습니다.

(3) 너무 간섭하지 말자——집중력, 자주성, 창조력을 키우기 위해서

어린이의 놀이를 특별한 이유도 없이 중단(中斷)시키거나 어린이의 의견은 묻지도 않고 어머니의 의사만으로 유희의 장소를 바꾼다거나 내용과 방법을 바꾸어 준다면 놀이와 더불어 기분 좋게 흐르고 있는 어린이의 감정의 흐름은 방해 당하고 자기의 놀이를 선택해서 놀 수 있는 것을 통해서 키워지는 자주성(自主性)이 좌절되며 집중(集中)될려던 놀이가 변경되면 사물(事物)에 집중하는 힘이 박약해질 것입니다.

「어린이 자신의 자는 시간은 어린이들이 걱정할 수 없지만 가지고 노는 장난감 인형의 자는 시간은 아동들의 마음대로 작정하게 하라」라는 말은 여기에서 참고가 됩니다. 무슨 일이든 너무 지나치게 간섭함은 안하는 것보다 못합니다. 다만 위험한 것을 뒤에서 제거해 주고 어려운 산수 문제 풀이에 힌트를 주듯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성장하도록 약간 도와주면 좋을 것입니다.

(2) 호기심(好奇心)의 싹을 꺾지 말자

어린이의 호기심은 생후(生後) 8개월 쯤부터 나타납니다. 그것이 극도에 달할 때 아빠의 시계를 뜯어 보게 되고 어머니의 화장품을 손가락으로 전부 파내고 핸드백을 뒤져서 무엇이 들어 있는지 알고저 합니다. 모래를 작은 바게뜨에 담았다 쏟았다 하며 어른으로 볼 때는 무의미한 행동을 몇 번이고 반복합니다. 커다란 이쁜 종이를 막 크레용으로 그어 버리고 가위로 오려내기도 합니다. 이것 모두가 호기심의 표현이며 호기심을 가짐으로써 창작(創作)의 힘도 생기고 열심히 관찰하는데서 점차로 지혜로운 어린이로 커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른의 이해 타산과 충돌하게 됩니다.

시계, 고급 인형, 한난계, 만년필등 값진 물건은 파괴의 기회를 갖지 못 하도록. 시야 밖에(視野外) 두어야 하겠고 이러한 행위가 있을 때는 파괴된 물건의 금전적 가치만을 따질것이 아니라 지식욕(知識慾)의 한 표현(表現)인 이 호기심 충족(充足)의 행동을 기쁘게 생각 할 것이며 파괴 행동을 억압하는 태도보다 도리혀 어느 정도 허락하는 마음씨가 필요하며, 보통 자동차보다는 조립했다 뜯었다 할 수 있는 자동차가 더욱 좋을 것입니다.

가위로 종이를 오리며 싸움도 잊어버리고 몇 시간이고 위대한 데자이너가 된 양으로 잘 노는 어린이를 종이와 아깝다고 지저분하게 된다고 종이를 가위를 뺏어야 되겠나 다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다락

에서 더 많은 신문지와 어린이의 단풍 같은 손에 알맞는 적은 가위를 가져다 줌이 어떨까요.

(5) 동무와 같이 놀도록—단체의 한 사람

여럿이 노는 동안에 자신(自身)의 존재를 발견하게 되고 충돌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 부모밑에서는 있을 수 있었던 자기 중심성(自己中心性)만을 고집 세울수 없다는 한계(限界)를 뚜렷이 인식하게 됩니다. 동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느끼게 되고 알게 되고 양보(讓步)라는 학습(學習)도 여기에서 키워지고 다른 동무의 수법이 되는 좋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사회의 요구(要求)와 이상(理想)에 자신(自身)을 맞추어 나가는 예비적 학습이 되며 그 고장이 요구하고 있는 좋은 시민(市民)이 되며 자신(自信)과 출선 행동(率先行動)하는 마음과 명랑(明朗)인내(忍耐) 정직성(正直性)을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외아들, 외딸의 경우는 부모가 이러한 점에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동무를 가짐으로써 중요한 사회적 훈련이 주워지는 것이며 이 때에 동무를 못 가짐은 그로 인하여 사회성의 싹은 키워지기 힘든 것입니다.

놀아도 같은 나이 또래의 동무와 놀자

나이가 위인 동무와 놀 때는 육체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피로하기 쉽기 때문에 건강에 해가 옵니다. 또한 자기의 생각된

리(權利)를 주장할 힘과 기회를 얻지 못하고 타인의 의사에 의해서만 움직이게 되고 자기의사를 버리게 됩니다. 또 어리다 고 그 나이 먹은 동무들이 동정하고 지나치게 돌보아 주면 지나친 의뢰심(依賴心)을 가지게 됩니다.

반대로 나이 어린 동무와 놀게 되면 어린 동무의 의사를 억압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정심(公正心) 협조심(協助心)을 가지는데에 지장을 줍니다.

여기에 이어서 혼자 놀기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첨부하겠습니다.

혼자 노는 것은 단체 생활에서 얻는 여러 가지 학습을 얻지 못하고 사회성(社會性)을 갖는데에 지장은 주지만 그것은 그것대로 또한 의의(意義)가 있음을 알아두는 것은 어느 불안을 가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혼자 노는 과정은 어린이가 좋은 것을 선택하며 결정을 하고 또는 자기 하는 것에 주의를 집중하는 것을 배우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自主性, 집중력을 양성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지요. 이것이 독립하는 자기의 첫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6) 환경을 풍부하게 만들어 주자

시간과 경제와 힘이 허락하는대로 어린이에게 많은 경험을 주어야 하며 그로 말미암아 견식이 넓어지고 아는 것이 많은 폭(幅)이 넓은 어린이가 됩니다. 많은 장난감, 각종의 완구, 각종의 그림(타는 것 전차, 비행기 동물, 기계등) 동물원 구경, 박

【良書案内】

이 기 열 지음

음식으로 병 고치는 법

<비 매 품>

연세대 학교 출판부 간

황 혜 성 지음
이 혜 경

宮 廷 料 理

값 1,000 환

朱 月 榮 지음

西 洋 料 理 (近 刊)

국 판 300 면

修 學 社 刊

물관 구경, 바다, 산등은 꼭 경험해야 할 큰 완구입니다. 새 것만을 좋아하게 되는 전전(轉轉)하는 마음이 키워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많은 상식에서 얻는 풍부한 경험, 많은 지혜력을 가진 어린이가 되도록 하십시오.

【兒童問題】

(7) 정돈하는 힘을 키우자—과제 의식 (課題 意識)을 통해서

어린이는 5·6살이 되면 과제 의식이 트기 시작합니다.

한 유희에서 다른 유희로 옮길 때는 꼭 정돈하고 난 후에 옮기도록 할 것이며 어린이로 하여금 정돈하기 쉽도록 장이나 선반, 상자같은 것을 준비해 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지도는 머지 않아서 가지게 되는 학교 생활에 좀 더 잘 적응할 수 있는 기초가 되겠습니다.

놀이의 중심이 되는 장난감은 어떻게 선택하면 좋을까

(1) 그 어린이의 월령(月齡)이나 연령을 봐서 선택할 것입니다(신체가 자라감과 정신적인 발달을 고려해야 하니까).

(2) 여아(女兒)냐 남아(男兒)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3) 그 어린이의 흥미를 고려하고 창작(創作)의 힘을 기를 수 있고 해체(解體), 재구조(再構造)가 가능한 것을 택하도록 함이 좋을 것입니다.

(4) 위생적이며 아름다운 것을 선택하도록 함이 좋을 것입니다.

다음표를 완구선택에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연령	선택시의 유의사항	완구의 종류	키워질수 있다고 생각되는 정신적인 육체적인 발달	비고
생후— 3개월 (누어 있는 시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각을 통해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것을 택할 것. • 입으로 빨어도 편찮은 것. • 모지고 보충한 것을 피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무풍선 • 바람개비 • 딸랑딸랑 • 방울 종 • music box 		감각유희
3개월— 9개월 (업드리고 가는 시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을 흔들어서 소리를 내고 변하는 것. • 기는 것을 재촉하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 • 오뚜기 • 딸랑딸랑 • 위험하지 않거나 여러 가지 	기는 운동이 된다.	운동유희
10개월— 두 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흡으로 소리를 내는 것. • 손을 움직여서 음(音)을 내는 것. • 밀고 당기고 하는 것. • 빛깔이 아름다운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리 • 인형 • 나팔 • 호각 • 고무인형 • 적목 • 공 • 목수연장 (목제 톱) • 점토(粘土)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큰 근육의 발달, 이어서 전신의 운동. • 운동신경의 발달. • 창조의 힘이 길러짐 • 등과발, 팔의 근육을 강하게 해야 하는 시기. 	구성유희
세살— 여섯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신의 운동이 되는 것. • 고정된 것보다 조립할 수 있는 것. • 비교적 정확히 손을 움직여야 하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큰 적목, 빈상자(속이) 미끄럼대, 색종이, 그네, 장기, 자동차, 기차, 비행기, 세바퀴자전거, 전화, 인형, 점토, 소꿉장난, 톱, 모래, 윤넉지, 그립책, 신문지, 가위(문한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은 근육 발달. • 몸의 평형을 갖게 됨. • 수족의 섬세한 운동을 배우게 된다. • 수에 대한 지식. • 기물건성돈. 	모방유희 상상 // 구성 //